

# 칸트의 정언명령에 대한 고찰

김세권

## 목 차

### I. 서론

### II. 인간의 경향성

#### 1. 자유와 의지

#### 2. 의무

#### 3. 선의지와 양심

#### 4. 자연의 경향성과 도덕법칙

### III. 정언명령

#### 1. 정언명령의 종류

#### 2. 정언명령의 적용

### IV.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매순간 자유롭지 못한 선택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전히 자유롭다. 그렇기에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택한 인간에게 행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행위에 대한 당위를 확보해야 그래야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의 행위 중 도덕적 행위라는 것이 있다. 도덕이란 행위의 당위가 인정되는 옳은 행위를 뜻한다. 그 옳음의 당위는 이성적 존재자로서 따라야 하는 준칙을 칭한다. 이 준칙의 당위는 자유로운 내 의지의 행위이며 자유롭기 때문에 도덕성을 가지고 행위 할 수 있다

수세기 동안 보이지 않는 도덕과 보이는 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규정지어지고 그것이 타당하고 옳은 것처럼 보여 진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도덕과 법 중 도덕을 통해 인간행위의 당위를 알아보고자 하며 후자인 법의 경우에는 공동의 계약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즉 공동적인 당위를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 세워진 것으로 볼 때 각각의 법에 당위의 유무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이성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미뤄둔다. 한 개인 차원에서 혹은 한 민족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채택될 수 있으나, 전체 인류차원에서는 채택될 수 없는 행위 규칙은 도덕적 법칙이 아닌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결국 전체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는 이성의 관점에서만 채택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필자 또한 이성

## ■ 졸업논문

의 관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덕적 최상 원리에 관한 정언 명령에 대해 알고자 한다.

한 인간의 모든 순간은 행위로 이루어 졌다. 행위 하지 않음은 그 말대로 행위 하지 않음을 행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를 옳고 그름으로 나누려고 한다면 그 옳은 행위를 해야 할 타당한 당위가 보장되어야 하거나 옳지 못한 행위의 부당한 당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도 그것들의 필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 필연성이 의지를 통해 해야만 한다고 했을 때 자유로움의 의지 가운데 준칙을 세우고 도덕을 규정하여 당위를 성립한다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칸트는 그 도덕성을 행해야만 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그것을 정언명령이라는 것으로 정리해 나갔다. 들어가기에 앞서 도덕 법칙이 인간에게 명령되어지며 그 인간이 행하는 행위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칸트의 정언 명령 중 두 가지 공식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정언 명령이라는 순전한 개념은 우리에게 아마도 자신의 정식을 제공해줄 것이고 사실 또한 그러하다 정언 명령은 법칙의 보편성과 이 법칙에 맞게 행위 해야 하는 준칙의 필연성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그것의 첫 번째 공식은 다음과 같다.

“네가 그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마치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은 이러하다 “마치 너의 행위 준칙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듯이 그렇게 행위하라.” 그리고 이 모든 행위 일반에 대한 도덕적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

은 우리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어야 한다.<sup>1)</sup> 위의 법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와 인간이 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도덕적 법칙이 가지는 한계를 찾고 극복해 나갈 방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 II. 인간의 경향성

### 1. 자유와 의지

인간은 감각된 현실이라는 조건하에 자유롭다. 또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인간의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진 모든 것들은 공간과 시간의 형식에 따라 일정한 질서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인간이 행위 하는 의지의 자유로움은 감각된 것의 세계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자유로운 경향성을 얘기한다. 그렇기에 행동의 당위를 찾는 것은 자연적 현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칸트는 순수한 이성의 절대적인 것 자유의 이념, 자유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하에 자유를 말한다.

당위가 있는 행위가 발현하게 되는 현상의 원인을 칸트는 인간의 “예지적”이라고 말했다. 감각의 대상에 있어서 그 자체로 현상이 아닌 것에 대한 것을 예지적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은 필연성이라는 행위를 말한다. 자연에서는 나타나지

---

1) 김재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칸트『윤리형이상학 정초』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년. 24 쪽

## ■ 졸업논문

않는 필연성이 바로 예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의지는 자연이상의 자유로움이면서 또한 자유로운 의지의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결코 그 이상의 것을 자연에 속한 인간이 보편적인 준칙을 세워 절대적으로 행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기에 명령되어 지는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이고 또한 명령임에 의무를 갖게 된다.

### 2. 의무

칸트는 ‘의무로부터’의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자기 생명보존을 위한 행동은 언제나 ‘의무에 맞지않’ 그것이 생명에 대한 자연적 경향성이나 애착, 혹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연유한 것일 때는 ‘의무로부터’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 할 수 있는 한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천성상 타인에게 매우 동정적인 사람도 많은데 그들은 허영심이나 이기심에 의한 어떤 다른 동기에서가 아니라 그저 주위에 기쁨을 확대하는 것에서 내적인 만족을 발견하고, 타인의 만족이 자기의 작품인 한에서 타인의 만족을 기뻐하는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그러한 행실은 아주 의무에 맞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경향성들, 예를 들면 명예로의 경향성과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예로의 경향성은 실제로는 공리적이고 의무에 맞으며, 그렇기에 ‘명예로운’ 것이어서 칭찬과 고무를 받을 만한 것이긴 하

지만 존중할 만한 것은 못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단지 객관적으로 실천법칙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 의무에 맞는 행위, 곧 합법칙적인 행위는 경향성들이 의지의 규정근거 일 때도 가능하지만 의무로부터의 행위, 곧 도덕적인 행위는 행위가 법칙 때문에, 그리고 법칙을 위해서 일어난 경우에만 성립한다.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행위를 통해 달성해야 할 의무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는 준칙에서 갖는다. 그러므로 도덕적 가치는 행동의 대상의 실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의 대상 일체를 고려함 없이 행위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의지의 원리’에 달려있는 것이다. 의무가 행위로 나아갈 때 그것은 어떤 경향성이나 충동에 규정받든지 의무로부터 규정받든지 할 터인데, 이때 의무로부터 규정받는다 함은 어떤 질료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의무를 규정하는 선형적인 형식에 규정받음을 뜻한다. 경향성의 영향이나 의지의 대상 일체를 떼어내고 나면, “의지에 대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 주관적으로는 이 실천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 외에 남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경향성을 단절하고서라도, 그러한 법칙을 준수한다는 준칙만이 남는다.”<sup>2)</sup> 행위의 필연성이 바로 의무이고 이것은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의 조건이기 때문에 의무가 우선시 되며 강조된다.

2)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백종현 옮김, 개정판 2009년, 381~405쪽

### 3. 선의지와 양심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이것으로 행위 한다. 그 행위는 항상 옳지만은 않지만 인간의 의지 자체에 옳은 선을 행하게 하는 ‘의무’라는 것을 즉, 선의지의 개념을 위해 끌어드린다. 그 이유는 일상적인 ‘의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덕법칙이라는 학술적인 개념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선의지의 개념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에게는 자연법칙에 따르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도덕법에 대한 존경심에서 행위 하려는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의지를 선의지라고 불렀다. 결국 선의지란 보편화 될 수 있는 준칙만을 법칙으로 채택하고, 자연법칙을 따르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채택한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래서 칸트는 의무는 도덕법에 대한 존경에서 행하는 행위의 필연성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선의지에 대해 양심과 헷갈릴 수도 있다. 하지만 양심과는 다르게 선의지는 형식주의적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이란 말은 애매한 말로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 속에서 울려 퍼지는 신의 음성으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인간 속에 있는 선한 본성으로, 혹은 선악을 직관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칸트의 선의지는 그런 의미의 양심과 같은 것은 아니다. 설령 양심과 동일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칸트의 선의지에는 아무런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양심은 취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양심을 구비해야 할 의무란 없다. 양심이란 윤리적 존재자로서 인간은 누구나 근원적

으로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다.<sup>3)</sup> 즉 양심은 자신의 의지로 인해 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제된 성질이라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일 뿐 임무나 의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가령 맹자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했을 때, 그 선은 구체적 내용을 가진 것이었다. 즉 측은지심과 수오지심 사양지심, 그리고 시비지심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칸트의 선의지는 단지 자연을 따르려는 것과 도덕법칙의 대립관계에서 도덕법칙을 따라 행동하겠다는 마음가짐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sup>4)</sup> 또한 양심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선의지는 자기애와 보편적 법칙 간의 종속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행위주체의 자율적 태도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개인의 감정과 기호보다 보편화 될 수 있는 행위규칙을 항상 더 중시하고 그 규칙을 따라 행위 하려고 한다면 선의지를 가진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선의지가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보았다. 선의지는 선한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관적으로 파악된 선을 실현하려는 의욕으로 충만한 '내용적인 의지'가 결코 아니라, 자기애와 경향성의 유혹을 물리치고 보편화 가능한 행위규칙에 따라 행위 하려는 '형식적인 의지'라는 것이다.

#### 4. 자연의 경향성과 도덕법칙

인간은 자연과 도덕법칙사이에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것

3)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백종현 옮김, 2012년, 487쪽

4) 문성학, 『칸트 윤리학과 형식주의』,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년, 72쪽



## ■ 졸업논문

은 인간이 도덕법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된다. 순수한 정신적 존재 예를 들면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도덕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유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의 행위는 전부 옳은 행위이며 도덕의 잣대를 들이댈 필요조차 없이 무결한 도덕 그자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에 발을 담고 있는 이상 순수하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법칙이 명령되어진다. 또한 인간이 자연법칙과 도덕법칙 둘 다와 동시에 관계 맺고 있기에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은 인간에게 법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자연법칙은 도덕법칙을 법칙이 아닌 것으로 만들려하고, 도덕법칙은 자연법칙을 법칙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칸트는 인간에게 도덕법칙은 법칙으로가 아니라 명령으로 부과된다고 말한다. 인간은 이 자연법칙과 명령되는 도덕법칙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그렇기에 자유롭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도덕법칙이 명령으로 부과되더라도 그것이 자유를 ‘깨달도록’하는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자유는 확실히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인 한편, 도덕 법칙은 자유의 인식 근거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도덕 법칙을 인간의 이성에서 먼저 명백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유로서 존재하는 무엇을(비록 이 자유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해도) 가정하는 권리가 없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가 없다면, 우리에게서 도덕 법칙을 찾아보는 일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sup>5)</sup>

동물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의지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5)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판』, 동서문화사, 정명오 옮김, 2011년, 570쪽

## 김세권: 칸트의 정언명령에 대한 고찰 ■

이다. 인간도 자연의 부분으로 생존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와는 별개로 작용이 이뤄진다. 신체적 작용과 같은 자연적 행위를 의지를 통해 멈출 수 없다. 하지만 의지를 통해 그 자연적 행위를 역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과는 상충되는 의지라는 것이 유효하게 된다. 인간행위에 있어서 동물과는 다른 점은 자유로운 의지적 선택이라는 것인데 타인에 대한 의지적 선택이라는 도덕적 관점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른 인간의 생명을 구해내는 행위의 경우에는 자신을 향한 행위가 아닌 타자를 위한 의지적 행위에서 도덕적 당위를 찾는다. 이 경우 당위를 인정받기 위한 명목으로 준칙의 보편타당성을 요한다. 하지만 그 보편타당성이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타자 또한 같은 준칙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나와 타자가 동시에 물에 빠졌다면 둘 중 한명만 살아서 돌아나갈 수 있다면 필연적으로 다른사람을 구하거나 자신만 살아남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의지적 선택의 자유로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행위 해야 하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위의 선택을 할 능력을 잃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동물은 반드시 그렇게 행위해야만 하는 자연법칙만을 따르고 그것이 도덕과는 무관한 자연으로부터의 주어진 것이기에 의지도 없이 그저 천성적으로 행위 하는 자체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의지의 정언명령과는 상관없는 자연목적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동물의 행위는 처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 종속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며 행위의 도덕성에 대해 처벌받는다. 그 이유가 앞서 말 했듯 당위성 자체를 떠나 행위

## ■ 졸업논문

의 실현의 주체가 의지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의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도덕법칙과 관계 지을 수 있다.

### Ⅲ. 정언명법

#### 1. 정언명법의 종류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명령이 존재한다. 이 명령은 그 행위에 의해 달성돼야 하는 다른 어떤 의도를 명령의 전제로서 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명령은 정언적이다. 이 명령은 행위의 질료나 행위에서 귀결되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를 산출하는 형식과 원리에 관여한다. 행위에 있어서 선의 본질은 심정이지 이런저런 결과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명령을 도덕성의 명령이라고 부를 수 있다.<sup>6)</sup> 정언적이고 도덕적인 명령을 구분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의지의 강제 개념이다. 단순한 강제가 아닌 모든 상황에서 항상 타당성을 갖는 강제라면 그것은 무조건 적이거나 정언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다. 또한 행위의 보편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인간은 자의적 기준을 갖고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칸트는 정언명령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다.

첫째로, '보편적 법칙의 법칙'(Formula of Universal Law)

---

6) 랄프 루드비히, 『쉽게 읽는 칸트 : 정언명령』, 이충진 옮김, 이학사, 1999년, 83쪽

## 김세권: 칸트의 정언명령에 대한 고찰 ■

: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도록 그대가 동시에 의욕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로 표현된다.

둘째로, ‘자연법칙의 법칙’(Formula of the Law of Nature): “그대 행위의 준칙이 그대의 의지를 통하여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듯이 행위하라”로 표현된다.

셋째로, ‘목적자체의 법칙’(Formula of the End in Itself): “그대는 그대 자신의 인격에 있어서건 타인의 인격에 있어서건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행위하라”로 표현된다.

넷째로, ‘자율의 법칙’(Formula of Autonomy): “보편적 법칙 수립적 의지로서의 모든 이성적 존재로서의 의지라는 이념”이라고 말한다. 이는 곧 ‘각각의 이성적 존재자는 자신의 의지가 보편적 법칙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의지인 듯이 행위하라’는 것이 될 것이다.

다섯째로, ‘목적의 왕국의 법칙’(Formula of the Kingdom of Ends): “의지가 자신의 준칙을 통해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존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로 표현된다. 칸트는 상이한 다섯 가지(혹은 세 가지)의 정언명법이 각기 다른것 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덕성의 원리를 제시하는, 앞서 언급된 세 가지 방식은 근본적으로는 단지 동일한 법칙의 다양한 법식들일 뿐이며, 그들 각각의 법식은 나머지 다른 두 법식을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다.*

## ■ 졸업논문

그렇다면 이 정언명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근본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보편적 법칙의 법식’을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정언명법들은 이에서 도출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칸트역시 다음처럼 말했다.

*정언명법은 유일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그대가 동시에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의욕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것이다.*

이 인용문은 분명히 ‘보편적 법칙의 법식’이 나머지 모든 정언명법의 근본임을 말하고 있다. 칸트는 이것을 정언명법의 첫 번째 법칙과 동일시하며, 이 법식을 “순수한 실천이성의 근본 법칙”으로 부른다. 도덕적 명령은 그것의 내용이 어떤 것이건 그 형식은 ‘너는 마땅히 X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그 형식을 풀어서 말하면,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법칙수립이라는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것이며 이는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동시에 그 행위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7)</sup>

### 2. 정언명령의 적용

앞서 본 정언명법에 의해 명령된 정언명령을 예를 적용시켜

---

7) 문성학, 『칸트 윤리학과 형식주의』,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년. 218쪽

이해하고자 한다.

제 1공식

“내가 그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마치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예를 통해 적용시켜 본다면 은행의 현금 수송 요원이 동 뭉치를 가지고 길을 걷고 이 있다. 그는 돈을 강탈당할 위험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본 나는 그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고 단숨에 돈 뭉치를 낚아채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기로 결심했다. 나는 돈을 강탈하는 나의 행동이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어차피 돈이 많기 마련이고, 더욱이 항상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십계명 중 제7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 계명은 타율적 규정, 타자에 의해 정해진 규정, 외부로부터 나에게 부여된 규정이다. 나는 도둑질 금지의 근거를 나의 이성 안에서 찾아내야 하며, 이성의 자기 규정이 도덕성과 비도덕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 점을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획득하는 것을 원할 수 있는가?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감각적 충동 내지는 감각적 동인이다.

칸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준칙의 정식화이

## ■ 졸업논문

다. 우리의 예에 해당하는 준칙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 된다. 삶의 쾌락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나는 언제나 은행에서 돈을 훔친다. 두 번째 단계는 위의 준칙을 보편화하고 그것을 보편 법칙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삶의 쾌락을 증진시키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훔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라는 법칙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된다고 생각해 보자. 만일 내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나의 이성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만일 내가 그와 같은 법칙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은행에 있는 내 돈을 훔쳐 가도 좋다는 사실 또한 원해야만 한다. 훔쳐 가도 좋다는 나의 바람의 배후에는 그와 상응하는 나의 의지가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의지를 이성적 의지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행위 하고자 하는 의지의 근거가 충동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의지로 행하는 도덕적 행위로서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제 2공식

*“마치 너의 행위 준칙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듯이 그렇게 행위하라.”*

이 두 번째 공식은 보편적 자연 법칙을 등장시킴으로 인간의 자연법칙과 정신의 최고선 사이의 갈등에서 한결 자유로울 수 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적 상태가 아니며 정신의 절대 발현인 최고선은 도달할 수 없다. 그렇기에 자연법칙에 규정되어지는 상태처럼 의지의 상태가 정신으로서 자연적인 것처럼 행위를

하라는 것이지 결코 자연 법칙이 되어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를 덧붙이자면 자연의 경험적인 규정 근거들은 어떤 보편적 외적 법칙 수립에도 적합하지 않고, 또한 '내적 법칙 수립'에도 쓰일 수 없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의 주관에 경향성의 기초에 두고 있고, 또 동일한 주관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 이 경향성, 다른 때는 저 경향성이 우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경향성들을 모두 전면적으로 조화시키는, 즉 하나의 조건 아래서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sup>8)</sup>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언명령은 나와 타인을 나누지 않으면서도 자기규정을 통해 준칙을 보편타당하게 한다. 만약 나의 행위가 정언적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정한 준칙을 모든 인간에게 적용시키며 다시 나에게로 그 준칙을 적용시켜도 그것이 감정이나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보편화의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황이나 자연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적용 가능한 준칙일 경우에만 정언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IV. 결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설사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당연히 일어나야만 하는가이다.”*

우리의 삶의 매순간순간 보편적인 것이 발견된다. 일회적

---

8)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판』, 동서문화사, 정명오 옮김, 2011년, 596쪽



## ■ 졸업논문

경험들 또는 되돌릴 수 없는 사건들만으로 살아온 시간은 몇 시간도 채 안될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의 내용이 보편적인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행위가 옳으며 어떤 행위가 옳지 않은가라는 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올바른 것이란 이러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준칙이다. 또한 이러한 도덕 법칙들과 도덕적 의무들의 원리는 의지의 자유이다.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 존재라고 해도 도덕적 자유를 확실한 소유물처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유를 상실할 위험 또한 일상에서 경험한다. 인간은 결코 도덕 법칙을 일관되게 지킬 수 없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인간은 정언 명령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도덕법칙을 찾고 있었고 모든 조건들로부터 독립하여 명령하는 것, 그것이 칸트의 정언명령이다.

□참고문헌

김재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칸트『윤리형이상학 정초』,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년.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백종현 옮김, 개정판 2009년.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백종현 옮김, 2012년.

문성학, 『칸트 윤리학과 형식주의』,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년.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판』, 동서문화사, 정명오 옮김, 2011년.

랄프 루드비히, 『쉽게 읽는 칸트 : 정언명령』, 이충진 옮김, 이학사, 1999년.